

#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4.29. ~ 5.5.)

|               |   |           |           |
|---------------|---|-----------|-----------|
| 이번 주<br>읽을 본문 | 가정  | 민 6 - 13  | 시 40 - 49 |
|               | 개인  | 아 4 - 사 2 | 히 4 - 10  |
| 이번 주<br>암송구절  | 바른 신학 - 다섯 오직(4) - 오직 그리스도(4)   |           |           |
|               | 갈라디아서 1장 7-8절<br>7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br>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br>8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br>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br>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           |           |



4월 29일(월)

민6

시40,41

아4

히4

## 히브리서 4장 / 안식의 약속

### 개요

1-13 안식의 약속

14-16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복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1-3절).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을 시작하셨습니다(3,4절). 그리고 그 약속은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5-8절).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순종함이 요구되는데(9-11절), 믿음으로 힘쓸 일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12,13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14-16절).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는 우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받으며, 주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안식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5장 /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예수****개요**

1-10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

11-14 성숙의 권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대제사장은 본래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1,4절).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서 다른 이를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2,3절). 예수님은 (연약하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이 권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4-10절). 예수님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습니다(6,10절).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독자의 영적 무지로 인해 제한되며, 그러한 현실로 인해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게 합니다(11-14절).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큰 대제사장의 자리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조건을 갖추셨으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움을 입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격이 있다고 여겨 경거망동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들로 주님 앞에 그럴 듯한 것처럼 내세울 때가 많습니까? 회개하오니 그저 주의 진리를 좀더 깊고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5월 1일(수)

|    |     |    |    |
|----|-----|----|----|
| 민8 | 시44 | 아6 | 히6 |
|----|-----|----|----|

## 히브리서 6장 /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방법

### 개요

1-12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라

13-20 오래 참음으로 얻는 소망

신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1,2절; 히 5:11-14). 그 일은 새로운 것을 배움이 아닙니다(1-6절).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3,7,8절).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9,10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11,12절).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13-17절). 하나님이 보증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겐 소망입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17-20절).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19,20절).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깊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처럼 호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그 안에서 견뎌 있습니다. 확실한 것, 붙잡을 것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오늘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영원히 변함 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월 2일(목)

|    |     |    |    |
|----|-----|----|----|
| 민9 | 시45 | 아7 | 히7 |
|----|-----|----|----|

## 히브리서 7장 /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 개요

1-10 멜기세덱

11-28 더 좋은 제사장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1-3절).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렸으며, 또한 멜기세덱은 레위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받기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4-10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와 달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한계를 초월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분이었습니다(11-21절). 예수님은 레위 가문의 다른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세움을 입은 더 좋은 제사장입니다(22-28절). 그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으며, 항상 살아계셔서 그 제사를 영원히 유효하게 하는 제사장입니다(25-28절).

예수님은 제사장이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분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세움을 받은 분입니다. 그의 특별함은 신분 뿐만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데, 그가 드린 단번의 제사는 영원하며, 항상 살아계셔서 그 제사를 영원히 유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의 제사 외에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 단번의 희생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5월 3일(금)

민10

시46,47

아8

히8

## 히브리서 8장 / 새 언약의 중보자

### 개요

1-5 모형과 그림자: 성막과 대제사장

6-13 실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긴 설명은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 말의 요점은 이렇게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1절). 다른 대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2-5절). 그러나 이제 그 실체인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오셨습니다(6-13절). 새 언약은 기존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며, 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참고 렘 31:31-34).

첫 언약의 문제는 약속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우리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근거로 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언약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믿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히브리서 9장 /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 개요

- 1-10 옛 언약의 의미
- 11-22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 23-28 단번으로 충분한 제사

옛 언약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그 자체로도 유효하며, 새 언약의 의미와 탁월함을 깨닫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첫 언약 때 성막은 첫째 장막(성소)과 둘째 장막(지성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사이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1-5절). 첫째 장막에선 평상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는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6,7절).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장막이 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신 방편이었습니다(8-1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11-14절). 그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15-22절).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더 이상의 제사를 필요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23-28절).

구약은 신약을 위해 배경입니다. 구약의 의미를 알아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두신 방편은 그 시대를 위해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옛부터 지금까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루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루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개요**

1-18 율법의 제사

19-39 예수의 피를 힘입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1-9절). 사람이 드린 제사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1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10,12-14절). 이를 성령이 보증하십니다(15-18절).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19-22절). 그러한 삶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입니다(23-25절).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실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26-30절). 그러나 믿는 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인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31-39절).

그리스도의 제사가 주는 효력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를 공상이나 초월적인 세계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곁에 있는 서로를 세우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며 필요하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일을 이어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담대함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소망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
|  |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
|  |  |
|--|--|

## 작고 강한 교회(3)

Part 1. 작은 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Part 2.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다**

Part 3. 작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Part 4. 작고 위대한 교회가 되다

\*칼 베이터스의 '작고 강한 교회'를 토대로 다시 쓴 글입니다.

###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독특한가?

- 교회가 작을수록 독특성은 더 커진다

20,000명과 2,000명 차이보다 200명과 50명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 같은 동네의 50명 교회와 50명 교회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50명의 교회에서 한 가정이 떠나면 어린이부 사역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50명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온 교인이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를 느낍니다(그는 새로 온 사람 앞에서 항상 이상한 말만 내뱉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든 그런 사람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교회가 크면 개인들이나 그들의 인격적 특성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인격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엉뚱한 행동보다는 전체적인 균중 심리가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노골적인 언행으로 때로 당혹스런 일을 만드는 교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종종 있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한 영향력이 훨씬 적습니다.(77-78)

작은 교회일수록 각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사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최근 교회 리더십 분야와 일반 기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라." - 짐 콜린스

이 말에는 기술, 감정적인 균형, 관계 지수와 같은 것들을 올바로 갖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는 '올바른 사람들'이나 '그릇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 우리 자원, 우리 선택, 우리 버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업계에서 버스에 탄 사람들은 지도자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 자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원이 아닌 목적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89)

## **교회의 건강과 성장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

**비밀1: 커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대형 교회에만 너무 집착하는 탓에 양적 성장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공담에 매료되어 그런 방법을 자신의 교회에 적용했다가 약속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와 관계의 손실만을 경험한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 비밀2: 양적 성장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2천 년 동안, 가장 꾸준하게 성장해 온 조직체는 역사상 교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보편 교회의 성장이 지역 교회의 양적 성장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더라도 양적인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작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 비밀3: 두 가지 목록, 건강한 교회를 위한 것과 큰 교회를 위한 것

### 목록1: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록

-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제자로 삼아라.

### 목록2: 큰 교회를 위한 목록

- 인구 밀집 지역
- 기금 모금의 은사
- 다수의 부유하고 관대한 그리스도인들
- 대규모 시설과 넓은 부지
- 교회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지 않는 정부
-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문화
- 기타 등등

어떤 교회든지 '목록 1'은 모두 다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기능하는 데 규모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한 환상과 부담을 버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작은 교회의 한계를 빌미 삼아 일상에 안주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한계는 좀 더 우리에게 걸맞는 발전의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의 혁신은 언제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민과 도전과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1:28)

## 함께 기도하기

주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힘쓸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